

지역 매 아리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창립 2주년 기념대회 개최

(사)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공동대표 황병주·강시복)가 18일 완주군에 회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웅치·이치 정신은 으뜸 완주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박성일 완주군수, 최동원 완주군의회 의장, 기관 단체장,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성일 군수는 "그간 주목받지 못한 웅치·이치전투 관련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전적지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선조들이 보여준 웅치·이치전투의 호국정신을 완주군 지역 정신으로 계승발전하자"고 강조했다. 황병주 상임대표는 "웅치·이치전투는 호남방어의 결정적 요인으로 승리의 전투임에도 그 동안 협소한 지역의 일개 전투로만 평가되어 왔으며",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는 두 전적지가 임진왜란 대표 성역이 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에서는 천선행(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이 '2018년 웅치전적지 매장문화재조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여 완주·진안간 옛 길 중 하나인 덕봉길 일원에서 드러난 웅치전투의 역사적 실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도서지원사업' 선정

완주군드림스타트는 여성사회복지재단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책 읽어주는 희망소리책 지원사업'에 지난 17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어가 서툰 결혼 이민자 부모가 속해 있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리더기 1대와 동화책 30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완주군 드림스타트의 다문화가정 3가구가 최종 지원 결정되었다.

도서를 지원받은 필리핀 출신의 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한국어로 동화책을 읽어 주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완주군의 도움으로 책을 읽기가 쉬워졌고, 자녀와 함께 책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국제종자박람회 김제서

## 시, 박람회 성공개최 위한 행정지원 현장보고회 진행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대식 부시장의 주재로 18일 행정지원 최종점검 현장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중 강당에서 국제종자박람회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각 부서장들이 부서별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지원계획을 보고한 뒤 박람회장을 돌아보며 현장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8월말 개최된 국제종자박람회 행정지원 실무협의회의 연장선에서 행사 전 준비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박람회 기간에 이루어지게

될 지원계획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온·오프라인 홍보, 현수막 등 홍보물 관리, 행사장 주변 제초작업, 박람회장 가로수 정비, 음식·숙박업소 지도 점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 및 주차장 관리지원, 교통정체 및 불법 주정차를 대비한 셔틀버스 승강장 운영, 행사장 주변 노점상 단속 및 영업불러스를 포함한 응급구호반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대식 부시장은 "작년에 이곳에서 개최된 제1회 박람회를 통해 34억원

규모의 종자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종자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는 우리시 종자산업 메카의 꿈을 실현시키고 종자수출 확대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는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주제전시관, 산업 I·II관, 체험관, 전시포 및 전시온실로 구성된 종자산업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더욱 철저히!

## 완주군,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 호응 얻어

완주로컬푸드가 2012년 개장 이래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며 소비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완주군 로컬푸드 매장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든 생산자가 생산단계부터 농산물 안전을 인식하여 토양, 용수, 주변 환경 등 모든 작물이 안전하게 재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인증 단계에서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 받고 매장에 납품 되더라도 안전성 관리 대상 로컬푸드 판매장 12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시료채취해서 부적합 농산물은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관리매장은 완주로컬푸드 협

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효자점, 모악점, 하가점, 삼천점, 둔산점, 혁신점, 용진농협 1·2호점, 봉동농협, 상관농협, 소양농협, 고산농협 등이며, 그 외에 건강관람상 꾸러미, 공공화교급식지원센터의 농산물까지 관리한다.

특히 완주군은 작년부터 유통단계 잔류농약분석의 한계를 느껴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모든 농산물을 로컬푸드 판매장에 출하하기 전 미리 밭에 있는 농산물을 채취하여 잔류농약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만 출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생산자들도 이 방식에 호응하여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분석을 의뢰하는 생산자가 많은데, 올해 지금까지 분석건수 1,820점에서 분석점수의 60%를 생산단계에서 차지할 정도로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완주군은 그동안 잔류농약분석 장비를 구비하고, 분석요원을 충원하였으며, 잔류농약분석 성분수도 320종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었으나, 밀려드는 분석 의뢰로 감당이 힘들어 올해 잔류농약분석 장비를 또 한 세트 더 구입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모든 농민에게 PLS제도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농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한편, 일부 부적합 농산물 농민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중욱 소장은 "앞으로도 완주로컬푸드의 안전성을 위해 모든 로컬푸드 판매장과 공조체계를 지속 유지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명인 안전성 담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김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 독거어르신 위한 행복 나눔

김제시 교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경준)는 18일 홀로 사는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내 생애 최고의 날' 어르신 삼김 행사를 펼쳤다.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협의체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가족과 연관이 되지 않거나, 자녀 없이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월 1회 8회째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명의 어르신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은 내 부모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를 대접했으며, 흥겨운 노래에 맞춰 어르신들의 거친 손과 굵은 어깨를 주물러드려 기운을 북돋아드리는 효도안마도 해

렸다.

또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을 챙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내의를 선물해 참석자 모두가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교월동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노인공경과 효사랑 실천에 앞장설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18일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알선 및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8 김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 2018 김제 일자리박람회 성료

### 역대 최대 규모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큰 희망 선물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알선 및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8 김제 일자리 박람회'가 구직자들의 큰 관심 속에서 18일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직접참여 32개 업체, 간접참여 42개 업체 등 총 7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채용규모도 직·간접 포함 419명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직접 참여 기업체에서는 면접관이 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간접참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김제 새일센터에서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아 해당

기업체에 전달하였다. 또한 구직상담 및 이력서 작성, 지원서정리,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하였다.

채용결과는 빠른 시일내에 김제 새일센터와 구직자들에게 통보해 줄 예정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란 센터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농기센터,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 성료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2018년 4월부터 실시한 강소농 정밀 경영개선 컨설팅을 아쉬움 속에 완료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개선의지가 높아 각 자율모임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4 농가들은 (주)넥서스브레인컨설팅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정밀 경영컨설팅 취지에 따라 본인 농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외부 격변 상황과 그 외부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염두해 두고 그 진단에 대한 여러 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장류 식품가공 2농가는 콩과 연잎을 생산하여 장류로 가공하고 이를 농촌체험까지 연결하는 6차 산업을 목표로 하는 농업경영체 이므로 컨설턴트들은 단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수농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사과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하며 체험객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시설을 운영하므로 가족구성원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콩과 한우 복합농가는 농산물 플랫폼을 만들어 주변 농가들에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플랫폼 구성 방법과 계획수립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 수행에 참가한 신동애(용인농원) 대표는 "강소농 경영개선 분야 정밀 컨설팅은 이론 교육과 현장컨설팅이 병행돼 농가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제3자적 입장에서 조금 떨어져 본인의 입장을 살펴보고 처해있는 현 위치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발견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